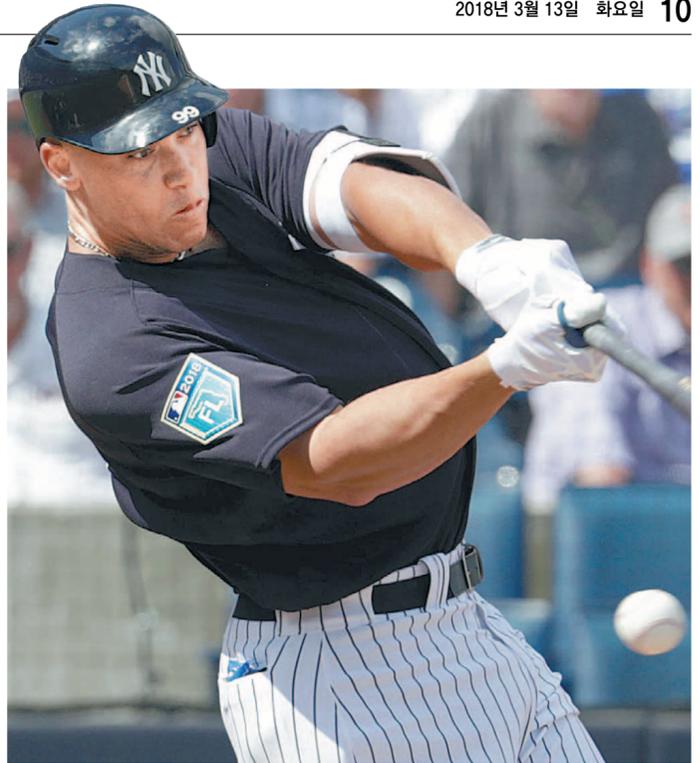




양키스에 뜬 '두개의 태양'  
'원원의 해법'도 흥미진진

2018시즌 메이저리그는 30일(한국시간) 개막한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챔피언 휴스턴과 지구 라이벌 텍사스의 맞대결을 비롯한 15경기가 일제히 펼쳐진다. 시범경기부터 이미 풍성하게 볼거리, 이야기거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악의 제국' 뉴욕 양키스의 행보가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2개의 태양이 함께 뜰 수 있는가'라는 흥미만점의 소재까지 겹쳐져 향후 양키스의 최종적인 '교동정리'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해 아메리칸리그(AL)와 내셔널리그(NL)를 양분한 홈런타자 애런 저지(26)와 지안카를로 스탠튼(29)의 성공적인 동거 여부다. 과거 양키스를 지명한 불세출의 두 스타 데릭 지터(44)-알렉스 로드리게스(43)의 공존 방식과도 닮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의 두 오른손 거포가 올해부터 한술밥을 먹는다. 뉴욕 양키스 지안카를로 스탠튼(왼쪽)과 애런 저지가 합작할 홈런의 개수에 벌써부터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똑같이 우익수로 활약했던 스탠튼과 저지의 포지션 교동정리가 선결과제 중 하나다. 현재 한창 진행중인 시범경기까지 시범무대다. 레이크랜드-벤패미 플로리다주 | AP뉴시스



# 스탠튼 좌익수 변신·저지도 플랜B 준비 '공존을 위한 실험'

(NY 이적전까지 우익수)

(우익수)

(좌익수·중견수 훈련)



정재우 전문기자의 MLB 트래커

수비 약한 포수 산체스 지명타자 기용뿐 저지·스탠튼 모두 외야 동시 투입 불가피 시범경기 좌익수 출신 스탠튼 실책 연발 2003년엔 A로드 3루 이동 지터와 '원원'

● '좌익수 스탠튼' 카드는 통할까?

스탠튼은 마이애미 소속이던 지난해 빅리그 전체 홈런왕(59개)과 NL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고 양키스로 이적했다. AL 홈런왕(52개) 저지와와 결합이라 즉각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낳았다. 그러나 두 거포 모두 수비 포지션은 우익수라 과연 양키스가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촉각을 곤두서게 했다.

스탠튼은 5일 탬파베이와의 시범경기를 통해 좌익수로 데뷔했다. 그러나 2회 제이크 바우스의 플라이 타구를 글러브에 넣으려다 떨어뜨리며 2루타로 둔갑시킨 데 이어 4회에는 케빈 키어마이어의 타구를 강한 햇빛 때문에 놓쳐 인정 2루타로 만들어졌다. 마이애미에서 활약한 저

지안카를로 스탠튼-애런 저지 메이저리그 통산 우익수 수비력 비교

구분	경기	이닝	수비기회	자살(PO)	보살(A)	실책	수비율
스탠튼 (2010~2017년)	942	8259.0	2094	1992	60	42	0.980
저지 (2016~2017년)	168	1454.2	313	300	7	6	0.981

※ 스탠튼은 중견수로 1경기(1.00이닝) 뛰어 수비기회 2번 모두 자살로 처리.

알렉스 로드리게스 수상 경력		데릭 지터 수상 경력	
AL MVP	3회(2003·2005·2007년)	AL 신인왕	(1996년)
AL 올스타	14회	월드시리즈 MVP	1회(2000년)
AL 골드글러브	2회(2002·2003년)	올스타 MVP	1회(2000년)
AL 타격왕	1회(1996년)	AL 올스타	14회
AL 홈런왕	5회(2001·2002·2003·2005·2007년)	AL 골드글러브	5회(2004·2005·2006·2009·2010년)
AL 타점왕	2회(2002·2007년)		

난 8시즌 동안 좌익수로 나선 적이 전무했던 스탠튼이지만, 마치 '굴러온 돌'인 까닭에 '박힌 돌'인 저지에게 우익수는 양보한 채 좌익수로 나섰다. 첫 경기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셈이었다.

양키스 새 사령탑인 애런 분 감독은 우익수 저지~지명타자 스탠튼~포수 개리 산체스로 연결되는 2~4번 타선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저지의 1번 배치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는 산체스에서 비롯된다. 수비력이 뛰어나지 않

은 데다 수비부담 또한 크기 때문에 산체스가 시즌 도중 지명타자로 나서야 할 때가 생긴다. 그 경우 저지와 스탠튼을 모두 외야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 스탠튼의 좌익수 변신이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를 통해 시도되고 있다. 물론 저지도 좌익수 및 중견수 훈련을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시즌 도중 상대 선발투수가 까다로운 좌완일 경우 나오는 좌타자인 브렛 가드너를 빼고 스탠튼이나 저지를 좌익수로 내세우려는 것이 분 감독의 구상이다.

● 우익수 수비력은 누가 더 나을까?

그렇다면 스탠튼의 우익수 수비력이 저지에 비해 떨어지는 것일까. 적어도 데이터 상으로는 두 선수의 능력치가 엇비슷하다. 2010년 빅리그에 데뷔한 스탠튼은 지난해까지 우익수로 942경기(8259이닝)에 출전해 수비율 0.980을 기록했다. 우익수 외에는 중견수로 딱 1경기(1이닝)를 소화했을 뿐이다. 2016년 데뷔한 저지 역시 지난 2년간 우익수로만 168경기(1454.2이닝)를 뛰며 수비율 0.981을 기록했다. 상당히 견고한 수비력이다.

비록 골드글러브를 수상하지 못했지만, 수비 능력 평가지표 중 하나인 DRS(Defensive Runs Saved)를 살펴보면 저지와 스탠튼 모두 정상급 우익수임이 드러난다. 지난해 우익수 부문 DRS에서 스탠튼은 +10으로 4위, 저지는 +9로 5위였다(전체 1위는 +31을 기록한 보스턴의 무키 베츠다. 텍사스 추신수는 -6이었다). 저지와 스탠튼은 빅리그 전체 우익수들 가운데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생산적이었다.

따라서 홈구장 양키스타디움에 익숙한 저지가 일단은 우익수를 유지하고, 스탠튼은 필요에 따라 좌익수로 나서는 것이 현재로서는 양키스가 꺼내들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변동의 여지는 삼중한다. 좌익수 자리에서

저지가 스탠튼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반대의 그림도 가능하다. 또한 어느 쪽이든 좌익수보다는 지명타자 기용이 제1우선이다.

● 지터&A로드의 공존이 연상되는 그림

스탠튼의 양키스 이적에 버금가는 일이 2003시즌 후에도 일어났다. 텍사스의 간판이던 로드리게스가 양키스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었다. 로드리게스는 당시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로 2002년과 2003년 연속해서 AL 골드글러브까지 수상했다. 양키스 유격수로는 이미 지터가 자리를 잡고 있던 때다. 노마 가르시아파라와 함께 빅리그 3대 유격수로 통하던 로드리게스와 지터의 평화로운 공존이 절실했다. 결론은 간단했다. 로드리게스가 3루수로 변신했다.

홈피로는 사실은 지터가 2004년을 시작으로 AL 유격수 골드글러브를 5차례 수상한 것이다. 반면 그 전까지 2차례 AL 유격수 활감장을 끼었던, 수비에 일가견이 있던 로드리게스는 3루로 옮긴 뒤에는 방망이로만 여러 상을 받았다. 수비부담이 큰 유격수의 골레를 벗고 공격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지만, 만약 로드리게스가 양키스로 이적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는 흥미로운 가정이 아닐 수 없다.

jae@donga.com

## 의성 마늘소녀들과 꼭 닮은 일본 '양파 프렌즈' 평창 신화



김종건 전문기자의 아날로그스포츠

일본 컬링대표팀의 김동스토리

- 1 홋카이도 양파 산지 기타미 출신들
- 2 일본 컬링 탄생시킨 선구자 오구리
- 3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선수들 지원
- 4 스승 영전에 바친 감동의 올림픽메달



1981년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제1회 NHK배 컬링선수권대회에서 오구리 유지가 스톤을 던지고 있다(왼쪽 사진). 오구리의 열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일본여자컬링대표팀 LS 기타미. 초등학교 시절 그가 발탁한 선수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내 고인의 품과 약속을 지켜냈다. 사진제공 | 기타미교육위원회·뉴시스

리고 경쟁력도 높는데, 한국과 일본은 선지자의 노력과 열정으로 단시간에 기적을 만들어냈다. 우리 컬링의 역사는 2006년 5월 의성에 컬링전용 경기장이 건설되면서 시작했다. 생소한 운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북체육회가 공동 지원을 했고, 사주지에 전용경기장을 들어서면서 역사가 만들어졌다. 지역의 꿈나무들을 모으고 이들을 훈련시킨 김경두 전 대한컬링협회 부회장의 오랜 헌신이 없었다면 이번 평창올림픽의 아름다운 기억은 신기루로 끝날 뻔했다.

일본에도 그런 리더가 있었다. 오구리 유지였다. 1980년 그는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컬링 강습회에 참가한 뒤 새로운 스포츠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오구리는 마을의 전통축제 때 컬링을 선보인 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천연 경기장을 만들었다. 아내와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던 그는 겨울이 길

고 추운 기타미에서 눈을 다져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물을 부어서 컬링이 가능한 얼음판을 만들었다. 장비가 부족하자 스톤을 대신해 프로판가 스톤이나 알루미늄통을 사용했다. 브라시의 대응 품으로는 대나무 빗자루가 등장했다. 비싼 스톤을 대신해 직접 돌을 깎아서 사용했다.

오구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생활 스포츠로서의 컬링의 효과를 알아냈다. 열정을 높이 사서 지역의 초대 컬링협회장이 됐다. 그는 지역사회 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기타미는 1988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컬링전용경기장을 건설했다. 그곳은 이제 일본 컬링의 성지가 됐다.

● 오구리와 다섯 아이들

오구리는 지역 아이들에게 눈을 들렸다. 초등

학교 운동회를 찾아가며 컬링의 재미를 설명했다. 재능이 있는 꿈나무를 발굴했다. 전용컬링장이 들어서기 전까지 도코로 지역은 컬링이 체육 수업의 과정으로 들어갔다. 사람을 위한 투자 덕분에 많은 유망주들이 발굴됐다. 1998년 나가노 올림픽 때는 5명의 일본대표선수가 기타미 도코로 출신이었다. 2006년 토리노와 2010년 밴쿠버 대회 때는 3명의 선수가 도코로 출신이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앞장서서 우리의 팀을 만들었다. LS(Loco Solare)기타미의 탄생이었다. LS는 태양처럼 빛나는 도코로의 아이들이라는 뜻이다. 평창올림픽에 출전한 일본대표 선수는 모두 오구리와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우리 동네 선수다.

주장 모토하시 마리는 가장 먼저 오구리의 손에 이끌려 스톤을 밀었다. 2010년 다른 지역의 컬링팀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역의 팀을 창설하겠다"면서 가장 먼저 오구리에게 인사를 드렸다. 올림픽에 2번이나 출전했던 마리는 "고향의 빛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리지역 팀을 만들겠다"며 앞장섰다. 그의 노력 덕분에 2010년 8월 LS기타미가 만들어졌다. 지역사회는 선수들이 걱정 없이 운동하도록 지원했다. 가장 먼저 팀에 합류한 선수가 리드 요시다 유카리, 세컨드 스즈키 유미였고 요시다 자매의 지나미도 서드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오구리가 초등학교 시절 컬링을 가르쳐준 꿈나무들이었다. 오구리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자질이 있다"며 항상 희망을 키워왔다. 팀의 완성은 스킵 후지사와 사스키의 영입이었다. 그는 5세 때 컬링을 시작한 영재였다. 아버지 후지사와 미쓰요시의 영향으로 일찍 컬링가문의 일원이 됐다. 미쓰요시

는 오구리의 제자다. 중학교 교사였던 1998년 나가노올림픽 일본 남자컬링팀의 후보선수가 됐다. 사스키는 아버지의 자질을 이어받아 어릴 때부터 군계일학이었다. 중부전력 소속으로 2014소치올림픽 대표선발전에도 도전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좌절을 경험한 뒤 컬링을 포기하려던 때도 있었다. 사스키는 고향팀에 합류하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었다.

● 오구리가 세상을 떠난 날 병실에서 선수들은 평창행을 약속하다

2017년 5월 오구리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한창 훈련에 열중하던 선수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도착 20분 전 그는 영면했다. 향년 88세였다. 오구리의 마지막 소원은 LS기타미가 평창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었다. 자신도 평창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반드시 할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리자. 꼭 평창에 나가자"고 영정 앞에서 다짐했다.

세계선수권대회 때, 지역 주민들이 오구리의 영정을 들고 LS 기타미를 응원했다. 평창올림픽에서도 LS기타미의 선수들은 약전고투를 거듭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상황,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생전에 오구리가 했던 말을 모두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구리는 "절대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 좋은 경기를 하라"고 가르쳤다. 선수들은 그 말을 따랐고 약속을 지켰다. 일본여자컬링 역사상 최초의 메달을 따낸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마자 메달을 들고 오구리의 무덤을 찾아가

marco@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